

칼럼



김 윤 호 주필, 행정학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국가사회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청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청년은 열정과 도전과 진취의 상징이다. 청년은 역사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동력이다. 청년은 역동적인 삶의 주체다. 청년은 꿈과 사랑과 용기의 용광로다. 그래서 청년은 그 자체로 너무나 눈부신 축복이다. 그래서 청년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다.

그런데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청년이 늘어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네 삶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따른다. 살아간다는(생존)는 것은 경쟁이다. 살아남으려면 더욱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 것이 비정한 현실이다. 부모의 보호 아래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청년들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변수 많은 불안하고 불확정적인 상황 속에 그대로 내던져지게 된다. 청춘 예찬은 옛날 말이 되었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절박한 문제가 취업이다. 일자리를 잡아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집도 구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취업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나 많다. 좋은 일자리 잡기를 바라지는 부모와 사회의 기대 앞에서 실패를 맛 보고 움츠러들고 우울해 지고 무기력해 진다. 얼굴을 들 면목이 없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기 쉽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이 경제적 침체기다. 일 년 이상 지속된 불황으로 안정된 직장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찾기 힘들어졌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취업의 높은 벽, 비정한 현실의 벽 앞에서 청춘은 맨 땅에 헤딩하는 절망감에 빠진다. 취업난과 생활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3중고(重苦)에 내몰리면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청년들이 적지 않다.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 '현재 소득이 없다'는 답변이 30.5%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28.0%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 그쳤다. 청년 10명 중 4명(37.1%)은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중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끼니를 못 챙겼다'는 대답도 27.1%나 됐다. 소득이 없으니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다. 청년 1인 가구도 약 3분의 1은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평소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겪는다고 응답한 이들이 10명 중 8명꼴이었다. 매일 우울하거나 좌절감을 겪는다는 이들도 16.3%였다. 청년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51.3%)이었다. 청년들의 좌절은 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투기성 짙은 주식 단타(短打) 때때나 '코인 투기'에 빠져들어 수업료나 월세를 날리는 청년들도 있다. 스펙 쌓기에 힘들게 많은 공을 들이고도 사회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39세 은둔형 외톨이가 13만5000명에 이른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우울하고 외로워서 죽는 고독사(孤獨死)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홀로 세상을 떠난 고독사도 작년에 97명이었다. 취업 등 경제적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들의 원룸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많은 자기소개서 파일과 먹다 남은 배달음식이 발견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다. '늘 나에게 애쓰기만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으로 살기 위한 방법' 등 책장에 꽂힌 책들 이름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개인적인 능력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코로나 장기화로 겪는 일시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구인난(求人難)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인력난(人力難)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직된 대학 정원 규제 등을 바로잡고, 산학(産學) 협력 등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같은 수급(需給) 불일치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일제(日帝) 강점기 청년 운동처럼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국민운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국민적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필요한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책임감을 갖고 미루지 말고 신속히 취해야 할 무거운 국민적 책무가 있다.

기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1+1 안전운전법을 지켜요

현대사회에 있어 차량은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도로를 마주하게 된다. 대부분의 도로는 신호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에 맞춰 움직이면 되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통정리(신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교차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호체계가 갖추어진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보고 지시하는 대로 운행하면 되지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이 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직진하는지, 좌회전 및 우회전 하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에 대한 판단을 순간 잘못하거나, 자칫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1+1 안전운전법을 기억해보자. 교차로(+)를 만나면 1(일)단 서행 후, 1(일)단 정지하는 것이다. 그 후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이 확보되면 교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1(일)단 서행, 1(일)단 정지에 대한 중요성은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제1항 제1조에 서는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동조 제2항 제1조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장소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규정하고 있다.

교차로 상황에 따라 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다 주의의무가 필요하므로, 1+1 안전운전법을 꼭 기억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으면 한다.

김정배(순천경찰서남문파출소경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분실 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누구나 한 번쯤 핸드폰을 분실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핸드폰에는 모든 개인정보와 결제수단이 담겨 있기에 분실할 시 일차로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경찰청 유실물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핸드폰 습득 신고 건수는 무려 111,607건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신고는 46,706건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아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www.lost112.go.kr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분실물 접수 및 습득물을 확인하여 본인의 유실물인지 확인

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둘째, 핸드폰 잠금화면에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이다. 삼성, LG핸드폰의 경우 : 설정 → 잠금화면 → 연락처정보 → 입력 → 완료의 순서를 따르면 잠금화면에 연락처 정보(분실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가 현출된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설정 → 건강 → 의료정보 → 긴급연락처 →

완료의 순서를 따르면 된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잠금화면에 바로 현출되지 않고 긴급상황란을 누르면 키 패드가 현출이 되고 좌측 밑에 보면 의료정보란을 누르면 저장된 긴급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핸드폰 잠금화면에 연락 받을 수 있는 연락처의 기재만으로도 소중한 핸드폰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여 주변에 많이 알려주길 바란다.

박상국/여수경찰서신기파출소경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인량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술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